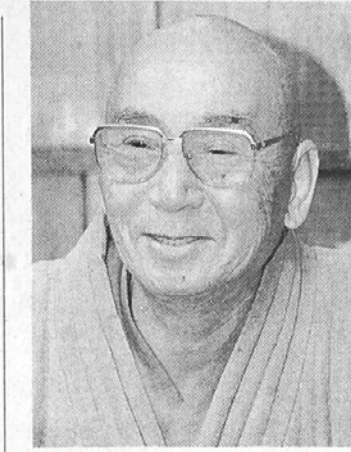




### 조계종 원로회의 불교 현안 논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해암 스님)가 지난 7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상전례를 결한 이번 회의에



조계종 총무원장 서암스님

"일만쯤 쉬었습니다. 앞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지 않은 이들이나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롭게 대중과 만나게 됐다"며 "자리가 마련되면 어느곳이든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 종단 울타리 벗어나 자유롭게 전법

대중에게 법문을 설한 서암스님은 "법생 받은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 불법을 접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 포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3억 신도를 보유하고있는 정교회 총대주교 비르톨로메우스 1세가 지난 10일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을 방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함께 참배드리고 있다.

###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청화스님(태안사 주지)은 오는 20일 한국 전통사찰을 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스님)에서 금불불(법문)집안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 참석, 법회를 봉행한다.

### 초남 오신날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초남 오신날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2)936-5263

### 일본서 자료수집

혜봉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은 3월19일 자료 수집차 독일, 일제의 한국불교침략에 관한 각종 문헌을 입수했다.

### 불교 꽃꽂이전 개최

보명스님(한국 불교 문화꽃꽂이회)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불교꽃꽂이전을 개최한다.

### 종립학교 포교현황 파악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각 종립학교의 포교현황을 파악키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황과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지난 5일자로 보냈다.

### 3군 사령부서 설립

지형스님(소림불교 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군 사령부서 당 호국선봉사(법사 이치영대령)에서 장교와 사병분장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의 세계'를 주제로 설립했다.

### 대법당·자비관 개원

승묵스님(동원정사 주지)은 오는 2일 낮 12시 남양주군 화도읍에 자비관과 대법당을 건립하고 개원법회 및 주지 진신식을 봉행한다.

### 해양대서 명예공박 학위

조종훈회장(장안진그룹)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한국해양대(총장 김효중)에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박 학사 학위를 받았다.



### 목정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취임식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4대 목정배원장 취임식이 지난 7일 오후 6시 엠버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맥 윌리엄스 호주대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호 문화교류에 불교계가 앞장 서 줄것을 당부했다.



### 전국교법사단 창단 4주년 기념법회

전국교법사단(단장 김종환)은 지난 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종립학교장 및 전국교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4주년 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지난 11일 유세준 기획관리실장, 서종한 신문방송국장, 유재용 방송행정과장과의 함께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 부처님 오신날 행사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미화원 초청 위문법회

고담스님(광덕사 주지, 노원불교사모연법회 회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미화원 2백70여명 초청 위문법회를 개최한다.

### 대법당·자비관 개원

승묵스님(동원정사 주지)은 오는 2일 낮 12시 남양주군 화도읍에 자비관과 대법당을 건립하고 개원법회 및 주지 진신식을 봉행한다.

### 해양대서 명예공박 학위

조종훈회장(장안진그룹)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한국해양대(총장 김효중)에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박 학사 학위를 받았다.

### "회관건립·신도 배가 운동 펼칠터"

### "이해심 깊은 한국인 형제되고파"

###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김용직 회장

지난 12일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직회장(관음종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신도들의 원활한 생활활동을 위해 일기내에 신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새벽(신묘장구다리) 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회장은 관음종 신도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원회, 관음종 불교대학 등에서 경전강좌를 펼치고 있다.

### 네पाल인 노동자 해리씨

"이처럼 한국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해 준 부처님과 한국불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한국말로 13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설움을 대변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해리씨는 "서로 이해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형제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내비쳤다.

### 게시판

▲정신과학이카데미=한국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송희식)는 4월26일부터 매주 수(오후 7시반)·토요일(오후 3시) '세계의 여러 수행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02)573-6535. ▲무료 합동결혼식=구룡사가 제3회 무료 합동 결혼식을 오는 30일 오후 2시 구룡사 결혼회관에서 연다.(02)571-2255 ▲불교문화=불교신행연구원은 오는 23일 서산 개심사, 마애삼존불, 보은사지로 답사 기행을 떠난다. (02)587-6613 ▲불교인권상 후보자 접수=불교인권위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후보를 찾는다. 대상은 인권과 통일운동고양에 힘쓴 공로자로 단체나 개인 추천가능. 마감은 26일까지. (02)745-2852 ▲이전 법보신문은 지난 15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조계사 건너면 진우빌딩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전화 (02)725-7012 ▲구자순회장(대한불교 부인회)의 장남 양성우군이 오는 29일 오후 1시 돈암동 태극당에식당 2층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02)736-5035



서삼목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오 필동 한국의 집으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봉 태고종 총무원장 지광 진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 대표들을 초청 오찬을 나누며 복지사업에 불교계가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했다.

### 생활속의 불교 23

## "양식을 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음식 차려놓고 먹기 전에 합장하며 '감사합니다.' 할 때 어디에 대고 감사하는 것인가? '부처님 감사합니다.'인가? '부처님께 회향합니다.'인가? 아니면 차려준 분? 농사 지은 분? 어느 쪽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분'인가?

농사 지은 분도 감사한 분이고,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애쓴 분에게도 감사할 일이다. 맛있게 먹도록 차려준 분, 알게 모르게 일손을 보태준 분들도 감사한 분이다. 그러니 모두에게 감사할 일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를 살리고 나를 먹고 있다. 나 혼자 발 같고 씨 뿌리고 나 혼자 거두고 나르고 나 혼자 풀이고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고 위한다. 그러니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산다. 공생·공식이다.



그러므로 밥 한 그릇 지어놓고 고맙다, 감사하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전체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술 떠넣는 일은 그 순간 전체와 더불어 한 모금 마시고 한술 뜨는 것이 된다. 고로 내가 합장하며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그 예를 받는 것이요, 전체가 한마음임을 다짐하는 일이 된다.

누가 따로 있어서 나로 하여금 굶지 않고 먹게 하였으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의 도리를 다 하노라.' 하지 않더라도 공생·공식의 원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면 합장이 곧 일체 중생·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요, 그대로 회향인 것이다. 부처님은 일체이지 '주신 그분'이 아니다.

협찬: 지일상·지애령